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현장…

"게임 통하면 교리 쉽게 익혀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5000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세울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문화콘텐츠다. 특히 엄청난 문화적 잠재성을 가진 불교문화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미래시대 불교를 주도해 나갈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 현장을 소개한다.

탱화등장인물을 한국적 캐릭터로
단청문양 디지털화 작업 진행중
삼국유사 설화 50편 애니메이션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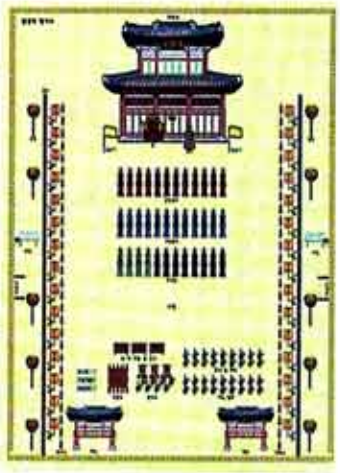
◐ 적경스님

적경스님(남양주 봉인사 주지)은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흥미있게 불교교리를 가르치고 불교를 생활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스님은 현재 '탄이의 불교 여행 모험(가칭)' 이라는 불교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 캐릭터 작업도 끝났고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탄이의 불교 여행 모험' 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모습이 없다. 마치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무예와 검법의 재미까지 가미시켰다. 교리에 대한 문답과 상황에 따른 깨달음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성은 어느 게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적경스님의 게임동자캐릭터.

◇정석규 교수가 개발한 사천왕캐릭터.


◇투알엔디의 팔관회 이미지 맵.

◐ 정석규 교수

호남대학교 인터넷미디어대학 정석규(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교수는 지난 6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2차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사업자로 선정, 한국 불화(탱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국적 캐릭터로 재창조해 내고 있다.

불화속에는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보살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 그리고 보살이나 호법신의 명을 받아 직접 일을 수행하는 판관, 귀와, 사자, 야차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한다.

"한국불화는 계급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친화적 캐릭터 개발이 용이하여 포켓몬스터나 디아블로 게임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게 정 교수의 신념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불화와 관련된 국내 서적을 모두 구입해 문헌 조사를 마친상태.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 김정현 학예연구관이 캐릭터를 선정해 고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탱화전문화가 고영을 씨가 그린 밑그림을 일러스터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불교적 특성이 강한 2D, 3D, SD 캐릭터 100여종과 이들 캐릭터를 이용한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캐릭터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누구나 무료로 캐릭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이미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 엔알케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단청장 만봉스님, 서울 신촌 봉원사를 비롯해 전국 유명사찰 단청 8000여점이 스님의 작품이다. 그 가운데 문양위주의 작품 500점과 스님의 단청기술이 한 불자 기업에 의해 원형보존된다.

◇엔알케이가 만용스님 단청문양을 비행기에 적용한 모습.

포장 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엔알케이(사장 정명희)는 지난 6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제 2차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에서 '만봉스님 단청문양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방안 연구' 라는 아이디어를 내 공모자로 선정,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만봉스님의 단청문양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엔알케이가 불교문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정명희 사장의 개인적인 인연때문.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문양을 활용해 집안의 상징 등으로 활용한 모습이 인상깊었고, 귀국한 뒤 줄곳 신촌 봉원사를 원찰로 신행생활을 해 자연스럽게 만봉스님의 단청과 불교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문화원형사업 공모를 보고 만봉스님이 올해 세수 93세로 연로한 것에 착안, 스님의 단청기술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게 됐다.

만봉스님도 정명희 사장을 위해 현재 직접 문양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스님의 그림은 스캔후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옛 건물에만 사용되는 단청문양이 아니라 실 생활에서 활용가능한 현대적 문양으로 거듭나고 있다.

◐ 투알엔디

고려시대의 팔관회는 불교를 배경으로 행해진 의식이지만 국내외에 고려의 정치, 외교적 독립성과 우위성을 천명하는 자주, 실리 외교의 장이며 국부 증대에 기여한 국제무역박람회장이었다.

(주)투알엔디(사장 최재완)는 '고려 팔관회의 국제박람회 요소를 소재로 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아이디어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제 2차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에 채택됐다.

투알엔디는 '팔관회' 의 국가의례적 모습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고, 비주얼 요소의 복원을 통해 정치와 외교, 문화와 종교, 무역 등 3가지 관점에서의 특성을 게임 시나리오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역사연구회 대외관계사반 소속 소장학자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팔관회 참관, 신촌 봉원사 영산재 자료확보, 목포 해양박물관 답사 등 국내에 남아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8월13일~19일에는 고려시대 흑산도의 교역항으로 유명한 명주 등 중국 일대를 돌며 문헌수집을 완료했다.

캐릭터 개발 등 디자인 전문회사인 투알엔디는 내년 6월까지 현대적 시각으로 팔관회를 재 복원해 시나리오 형태, 캐릭터, 이미지, 배경화면 등으로 콘텐츠화해 게임 등 산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 시공테크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들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 시공테크(대표이사 박기석)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코리아비주얼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신라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지, 백제를 대표하는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불교문화재와 중국 당나라때 활약했던 고선지 장군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을 3D로 복원했다.

1988년 설립된 시공테크는 10여년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오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이르기까지의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 그 종류만도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불교관련 사진자료만도 5천여점이 넘고, 불국사 등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는 중창되기 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있어 사찰의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다. 아직까지 전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공테크는 이같은 자료를 이용해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유산 1, 2〉라는 두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영문판까지 출간되어 현재 외국 박물관 등에서 구매 요청이 오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은 불교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한국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7월 31일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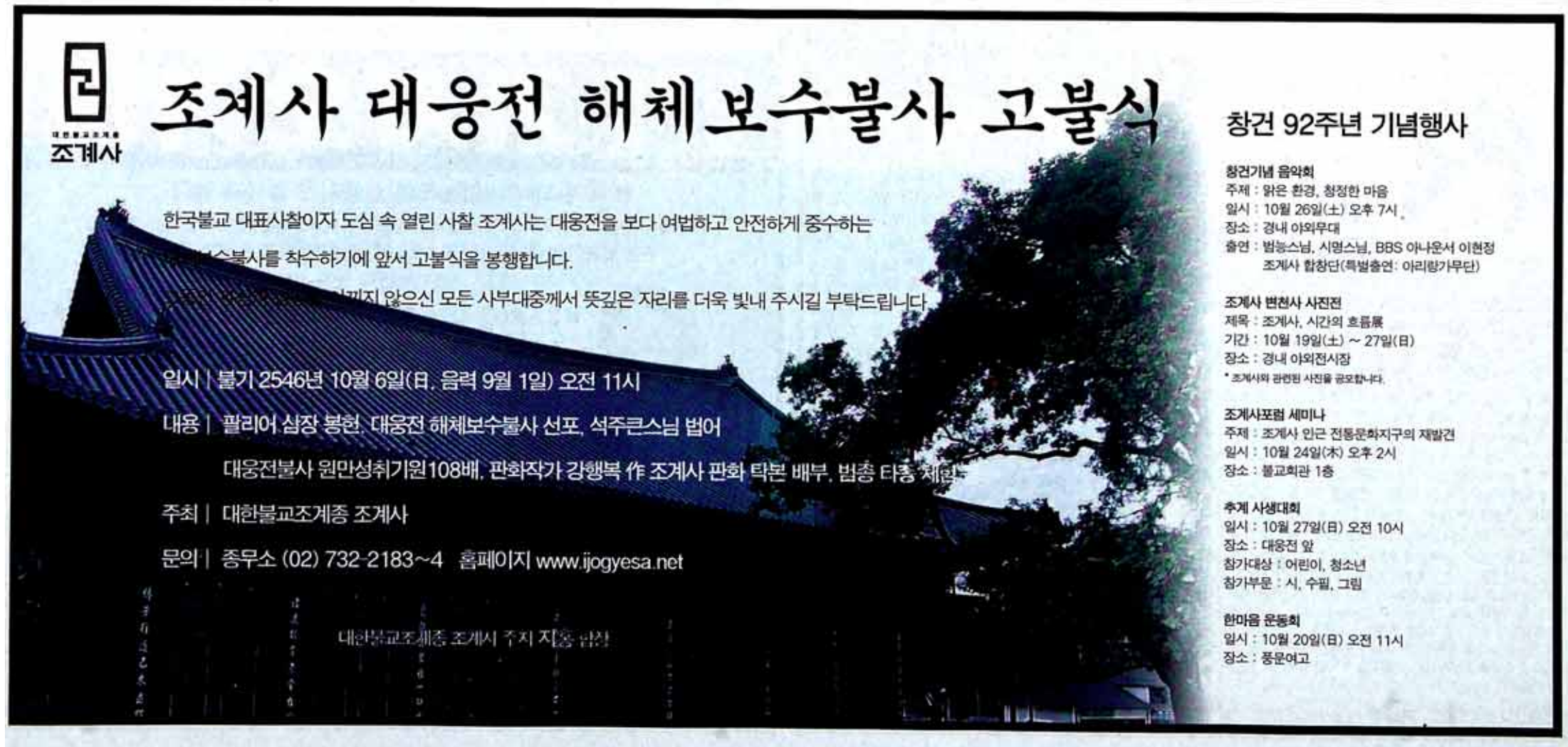
한국문화를 말할 때 불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기획단은 불교문화를 알아야 한국문화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캐릭터, 시나리오, 게임, 음반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교문화 운동을 펼쳐 그 저변을 확대하고 인력양성을 통한 불교문화 인프라 구축 등 산업적 인프라 구축에도 전념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창립과 함께 불교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우선 '아름다움과 깨달음-근 현대 의술작품속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국 순회전시회를 기획하고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서울 전시후에는 속초, 여수 등 지방 중소 도시를 돌며 불교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 동국역경원

지난해, 37년간의 불사끝에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동국역경원은 2001년부터 10년간 국고지원 40억원을 포함해 총 80억원의 경비를 들여 한글대장경 재번역작업과 전산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엄경 등 불자들이 많이 읽고 있는 일부 경전은 전산화가 이미 끝난 상태다.

◐ 이종욱 교수

위덕대학교 국문과 이종욱 교수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 130여편 가운데 설화의 배경이 된, 지명이 확인 가능한 50여편을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군신화, 박혁거세, 화랑연화 등 삼국유사 앞부분에 실린 10여편의 설화들을 동화로 각색해 애니메이션작업을 마쳤다.

김두식 · 이한길 기자